

大河기획/한라산 학술 대탐사(213회)

제2부 한라대맥을 찾아서 47

왕관릉·탐라계곡 끼안은 변화무쌍한 산체

입력 : 2004. 09.17. 00:00:00



▲백록담 서북벽에서 뺏어내려온 장구목 능선. 용틀임하는 암괴들이 길게 이어져 있고 탐라계곡과 왕관릉 등 주변경관을 끼안고 있는 지세다.

장구목·삼각봉

○...백록담 답사를 마친 탐사팀은 서북벽을 타고 내려와 장구목으로 향했다. 변화무쌍한 날씨는 안개로 시야를 온통 가렸다가는 잠시 선경을 보여준다. 탐라계곡, 삼각봉, 큰두레왓, 민대加里(민오름)가 차례로 펼쳐진다. 장구목 끝자락에는 삼각봉이란 봉우리가 있다. 관음사 등산로의 개미목에서 보면 삼각뿔 모양으로 곧추선 모양이 뚜렷하다. 삼각봉에서 골짜기 건너편에는 왕관모양으로 볼썽 솟아있는 왕관릉이 있다. 탐사팀은 장구목과 삼각봉으로 향했다....○

장구목의 표고는 해발 1,813m이다. 제주의 오름들 중 제일 높은 곳에 위치한 오름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장구목을 제주 오름의 1번지라고도 한다. 윗세오름대피소에서 서북벽쪽을 바라볼 때 왼쪽 정상에 돌무더기를 거느린 오름이 바로 장구목이다.

제주시에서 한라산을 바라볼 때 정상 바로 오른쪽에 있는데 얼핏 보아서는 굽부리에 뺨뿔린 화구를 거느린 여느 오름과는 모양새 부터가 다르다. 장구목은 백록담과 탐라계곡의 서북쪽으로 비스듬히 이어지는 산등성이를 모두 아우른다. 수직으로 계곡을 향해 내리쳐진 절벽의 모양이 마치 장구를 닮아 붙여진 이름이다. 관음사등산로변 왕관릉에서 바라보면 전체적인 모양새가 거대한 장구가 가로 놓여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1986년부터 윗세오름대피소에서 서북벽에 이르는 등산로가 자연휴식년제로 지정되면서 일반인들은 갈 수 없는 곳이다. 이곳은 휴식년제 기간이 2005년 2월까지로 돼 있지만 그 이후에도

쉽게 드나들 수 있을 것 같지는 않다. 아직도 이 일대에는 사람의 발길에 채인 훼손지를 복구 하느라 헬기까지 동원해 흙마대를 실어 나르고 있다.

장구목은 깎아지른 듯한 단애도 일품이지만 한천과 무수천(외도천) 등 제주시 양대 하천의 발 원지와 닿아 있다. 정상부의 돌무더기 아래에는 두 개의 추모비판이 박혀 있어 눈길을 사로잡는다. 고(故)고동익대장과 맥킨리 원정대를 추모하는 동판이다.

제주대산악부 고대장은 1983년 12월 24일 훈련을 위해 탐라계곡 등반후 일몰, 폭설로 인해 장구목에서 비박하고 이튿날 귀환하다가 그만 동사하고 말았다. 당시 그의 나이 23세였다. 또 하나의 추모비판은 92년 북미 최고봉 맥킨리 원정중 사망한 양영수·진성종·홍성탁 등 세명의 악우의 넋을 기리고 있다.

한겨울 장구목과 탐라계곡 용진각 골짜기에는 사람의 허리가 잠길 만큼 많은 눈이 쌓인다. 바람 또한 거세게 불어 고산을 오르려는 산악인들은 이곳을 훈련캠프로 이용한다. 요즘에도 한겨울이면 히말라야를 꿈꾸는 산악인들이 이곳에 몰려온다. 삼각봉으로 향하는 길목 평원에 이르면 우리나라 최초로 에베레스트를 오른 고상돈 돌탑이 서 있다.

장구목 정상부 중앙에는 충분히 호기심을 가질만한 돌담이 눈에 들어온다. 이 돌담의 정체는 무엇일까. 1974년 제주도가 펴낸 '한라산천연보호지구 자원조사보고서'에는 '돌담으로 경계를 하여 산북과 산남의 우마(牛馬)가 서로 넘어가지 못하게 한 까닭에 유래됐다'고 언급하고 있다. 장구목 능선과 용진각대피소 기슭이 맞닿아 있는 삼각봉은 위쪽에서 보면 장구목의 연장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독립된 오름이다. 이 오름은 연두봉(鸞頭峰)이라 하여 '술개의 머리'란 뜻도 지니고 있다.

/특별취재팀

[전문가 리포트]적설기 등반훈련 코스 최적

2001년 2월 16일 한 낮에 울린 전화벨 소리에 제주 전지역의 이목이 한라산 장구목으로 쏠렸다. 도내 3개대학 산악회가 제주지역 대학산악연맹 결성을 앞두고 장구목에서 동계합동훈련중 눈사태로 3명의 회원이 눈 속에 매몰되었다는 상황이 접수된 것이다.

적십자산악안전대원들에게 비상이 걸리고, 한라산국립공원관리사무소 직원들이 현지 출동하고, 장구목 인근지역에서 훈련중인 목포대산악회와 함께 구조작업을 펼쳤다. 햄과 휴대폰으로 연락을 취하며 구조작업에 안간힘을 쏟았지만 눈 속에 매몰되었던 3명 전원이 숨진 채 발굴되었다. 왜 그들은 험준한 지형에 눈사태의 위험을 감수하면서 장구목으로 향했을까. 저 높은 곳을 향하여, 그리고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해 한라산을 제집 드나들듯이 모든 열정을 산에 바쳤다.

장구목에서 삼각봉에 이르는 능선은 겨울철 서북계절풍이 바로 들이치는 지점으로 많은 양의 눈이 쌓이고, 풍속과 적설량에 따라 시시각각으로 지형이 바뀌는가하면 용진각쪽의 바위능선에

는 거대한 커니스(눈처마)가 형성돼 언제 무너질지 아슬아슬하다.

초속 30m 이상의 폭풍과 허리이상 빠지는 눈 속에서 살을 에는 체감온도를 이겨내면서 등반 훈련에 열중하는 산악인들을 보면 참 나를 찾으려고 고행의 길을 가는 수도자처럼 숭고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최악의 상황들을 하나하나 극복하면서 목적지에 다다르는 그들에게 등반행위 자체가 스스로의 길을 열어가는 구도행위가 아닐까 생각해본다.

전국의 산악단체가 대규모의 해외원정등반을 계획할 때에 적설기 훈련등반은 장구목에서의 설상훈련을 필수로 거친다. 그 이유는 장구목 만이 가지고 있는 지형적·기상적 특성 때문이다.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기상에 대한 적응훈련, 그리고 세찬 폭풍설 속에서 러셀(눈길트기)훈련은 적설기 등반의 핵심이다.

적설기의 장구목! 이곳에서 젊은 산악인들의 열정과 함성이 용진굴 전체에 메아리 칠 때의 그 모습이 장구목의 참모습이 아닐까.

<오문필 탐사위원>

<저자권자 © 한라일보 (<http://www.ihalla.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